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0. Vol. 10. No.2, pp. 109~138

가족이 영재성 발달에 끼치는 영향

김 정 휘(춘천교육대)

I. 머리글

영재란 영리하고 재주가 놀라울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학생, 즉 공부 잘하거나 창의력이 뛰어난 또는 음악, 미술, 연기, 손재간이 우수한 학생을 말한다. 이들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친다든가 또래보다 수준 높은 지식을 더 많이 혼자서 깨우치고 비판적 안목을 갖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을 말한다.

영재들은 생명력, 활동력이 왕성하고 풍부해서 많은 창의적 업적을 생산해 낸다(저술, 연구, 연출, 연기, 예술활동에 있어서 기존의 체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독창성을 발휘한다).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시대적,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공헌을 한다. 그래서 사회와 개인이 존중(인정)하는 높은 수준의 성취를 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업적을 발휘한다(예, 다빈치 생존시에 지구상에 비행기가 없었으나 헬리콥터를 스케치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영재는 태어나기도 하지만 길러지기도 하는데 영재성의 발견, 개발, 육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영재교육이다.

영재자녀가 자라난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아동기에 가정에서 지적인 자극을 제공해 주었으며 「네 꿈을 펼쳐라」와 같이 지적 성취에 대한 가치를 격려했고 성공과 포부수준, 학습(반드시 학교 학습만이 아니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주었고 지도자의 교습방법이 다양했으며 훌륭한 스승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고 성공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섰으며 최고 정상에 대한 동일시(모범모형)의 대상이 있으며 영재이기 때문에 남달리 부닥치는 시련·

고민을 견뎌내는 욕구 좌절 감당력이 남다르고 부모나 가족의 헌신·희생 위에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대성(大成)한다.

한 인간으로서 매력과 카리스마도 영재성 발휘에 중요한 조건이 된다. 영재가 자라날 수 있는 정신적 풍토는 속물지향과 배금주의와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될 영재를 발굴·육성하는 데 빨리 투자를 해야 한다. 따라서 영재교육법이 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두뇌경쟁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의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기대와 우려되는 바가 있으나 현책을 강구, 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지표도 「예외적 인간(exceptional man)을 찾아내라 그들이 거인이 되도록 육성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국제화 시대와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1960년에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건학 기념일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잘 암시해 주고 있다.

「한 나라의 부강을 형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국민이 갖고 있는 우수한 인간의 수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김 정휘, 1997)

가족과 가정환경은 영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영재 아동·자녀와 가족 구성원간이 상호작용 관계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는 점은 이 논문에서 소개한 여러 선행 연구 자료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시하면 Bloom, 1985;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Olszewski, Kulieke, & Buescher, 1987; Rimm, 1995; Moon, Jurich, Feldhusen, 1998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이들 연구 자료는 가족의 역동성(구조, 역할, 기능, 영재와 평재 형제와의 관계, 가내 지원 수준, 가족이 특별히 옹호하는 가치관 등)이 영재 아동의 정서·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Silverman, 1991).

가족과 가족환경을 어떻게 분리해서 연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했는가, 다뤄져야 할 연구 내용과 검증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는 별도로 검토·논의가 필요한 과제인데, 가족환경(family environment)도 역시 재능(talent)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Bloom, 1985; Kulieke & Olszewski-Kubilius, 1989; Olszewski et al., 1987; Van Tassel-Balka, 1989b). 실제로 재능 발달을 체계적 관점으로 조망할 때, 가족은 특히 어린 영재 자녀(아동)의 경우에 재능 발달 과정(talent development process) 상에서 가장 중요한 체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경우 정경화·홍혜경·장영주·신수정 가족의 예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영재 아동이 여름·겨울 방학 때 학교에서 운영하는 재능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독려하거나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누구인가를 조사했을 때 70%가 부모를 꼽았다(Robert, Carter, & Mosley, 1982).

이 논문에서는 영재 아동의 가족 특성을 기존 선행 연구 자료를 분석 고찰하고, 앞으로 이들

가족 특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 의도이다. 학교만이 고 IQ 아동의 발달에 기대만큼의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가족·가정 환경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관련 모형을 설정하려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이다. <표 2>을 보면 영재학생의 영재성 발달 및 육성이 오로지 학교 교육만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의 주제를 탐구함에 있어서 기본 전제는 영재성이나 재능으로 알려진 소질을 수유하고 있고 영재 학생 본인이 이를 육성, 연마해서 동일시의 대상처럼 최고의 인물로 대성하고자 하는 노력, 의욕(욕망)과 도전정신을 나타내고 이를 이끌어 주고(pull & push) 뒷받침하는 부모·가족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열정, 이 매우 뛰어난 영재를 알아보고 기꺼이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최고봉 권위자의 지도력, 등용의 선발과정 등이 어우러져서 영재성이 발휘되고 인물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영재성 발달에 가족이 끼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설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II. 이론적 조망: 가족 체계 이론(family systems theory)

영재성의 발달, 육성(교육)에 가장 큰 잠재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영향력을 지닌 세 가지 유형 즉 가정(가족), 영재 자선,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된 조건(변인)에 대한 분석, 연구의 틀로서 필요·충분조건, 원인, 중재(개입) 결과와 같은 패러다임에 의한 인과모형, 과정변인, 촉매(기여) 요인 등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정, 가족의 어떤 조건이 또는 어떤 가족의 영향력 하에서 자녀의 영재성이 발달·육성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가와 위에서 예시한 세 가지 유형에 관해 선행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모형(model)을 개관,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족이 영재 자녀의 재능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과정 변인으로서 재능 발달 과정을 분석하고자 노력하는 연구자들(Tassel-Baska, Kubilius, 1988; Albert, 1975)이 제기하는 질문, 문제 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과 학교와 같은 제도가 관례적인 재능발달 과정의 대행자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2. 이러한 대행기관에는 영재 학생의 생활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유의미한 중심인물이 존재하는가? 어떻게 그들의 영향력을 특징지을 수 있는가.
3. 영재 자녀의 영재성/재능(G/T) 발달에 매우 중요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

정·가족이라는 조건과 관련된 촉매 작용(catalysts)의 역동성을 어떻게 분석, 설명할 수 있는가.

4. 학생들이 재능발달 과정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영재 자신의 어떤 성격 특성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5. 이러한 요인들은 성공적인 유형의 재능발달을 이끌어내는 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영재 학생(아동)의 어떤 발달단계와 관련이 있는가.
6. 영재성(G/T)이 수월성을 촉진, 개발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지원, 중재, 과정 변인으로서 교사와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당사자인 영재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영재성, 재능의 훈련·개발을 위해서 교사와 부모는 어떻게 무엇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선행 연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7. 영재 자녀를 배출한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탈무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자녀 양육(육아)상의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8. 영재들의 지적 능력, 성격 특징, 생활사 그리고 특출한 재능(exceptional talents)을 출현케 한 가정 배경 등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9. 수월성, 영재성, 재능, 저명의 본질을 어떤 증거에 의해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영재성, 재능을 발휘하게 하는 행동유형, 성격, 환경유형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접근방법으로 탐구해낼 수 있는가.
10. 가족과 학교에서의 영향에 관한 증거(성과)를 어떻게 판별, 차별화할 수 있는가.
11. 가족이 아동기에 해당하는 영재 자녀의 조숙성(precocity)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영재 아동의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독특한 역동성(unique dynamics)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1. 가족 연구 ~ 모든 종류의 가족 체계의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
2. 가족 치료 ~ 가족간에 강력한 인간관계를 확립하도록 가족을 조력 즉 부모, 가족, 가정이 자녀의 영재성 개발, 발휘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기울이는 분야
3. 영재(아동) 자신을 연구 ~ 재능 있는 개인의 본성과 그 양육 환경(nature and nurture)을 이해하고 헌신하는 분야

위에서 예시한 가족 연구 및 가족 치료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족의 상호작용적 정서 체계가 한 명이나 그 이상이 가족 구성원에게 충격을 주는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론화하고 있다(Bowen, 1978; Broderick & Smith, 1979; Kerr & Bowen, 1988; McCubbin & Figley, 1983; Minuchin, 1974; Minuchin & Fishman, 1981; Whitchurch & Constantine, 1993). 가족 체계 이론 관점은 역동적 체계로서 가족을 전체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부분은 전체에 영향을 끼치며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는 형태심리학의 관점을 중시한다. 체제적 관점에

서는 영재 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가족내 개인들을 구성원들간의 인간관계 그리고 유의미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관계 맥락 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가족 체계론은 가족을 사회 체계의 광범위한 위계의 일부로 인정한다. 가족 체계 내의 하위 체계는 부모~자녀와 배우자 양자 관계가 있으며, supra system에는 사회 문화적 체계·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은 체계와 같이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체계를 말하고 평행적 체계(parallel system)는 그 학교 체제, 직장 체제와 같이 가족 구성원이 함께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체계적 관점은 최근에 영재 가족(의 역동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sikszentrihalyi et al., 1993; Feldman, 1986; Gruber, 1989; Jenkins-Friedman, 1991; Windecker-Nelson, Melson, & Moon, 인쇄중). 그 외 가족~학교간의 상호작용을 가족 체제 이론에서 연구를 시도하고 있기도 한다(Fine & Carlson, 1992; Moon, 1995). 이 체제 이론은 아마도 영재 가족의 독특한 특성을 조명하고 아울러서 영재 아동(자녀)과 그의 가족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lbert(1980)는 한 개인이 어떠한 분야 내에서의 성취를 위해서는 재능, 동기, 가치,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기회와 성취가치 사이에 높은 수준의 조화와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족에 관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가설을 세웠다. 이것은 가족의 역동적 기능을 잘 묘사한 것이다(김 정휘, 1993).

첫째로, 가족은 세대 상호적(inter generational) 인간관계를 주축으로 기능한다. 두 세대와 그 이상의 세대 사이에 중요하고도 광범위한(종종 특별한) 상호작용이 계속된다.

두 번째로, 가족은 교류적(transactional) 인간관계를 주축으로 기능한다. 일상생활, 삶, 발달에 필요한 정보자료(종종 특별한)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 교환된다. 비록 각각의 구성원들은 모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며 적절히 그들과 관련성을 갖고 있으나, 가족 구성원의 여러 가지 조합(combination)이 이해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구별되는 생활양식을 갖는다.

세 번째로, 가족은 문화적·심리적인 구성단위(unit)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단위이다. 가족 구성원들은 보통 망각된 과거의 가족과, 성장초기의 중요한 가족경험에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구성원의 가족에서의 위치(position)는 그를 가치자원, 기억 등에서 뚜렷한 관계를 갖도록 한다. 예를 들면 뿌리(Roots)의 작가인 Alex Haley에게는 그의 할머니의 초기 가족들의 내력에 관한 상세한 기억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졌다.

비록 예견할 수는 없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역사적 사실(fact of history)은 예기치 않은 죽음(死別), 이혼(별거) 또는 중요한 가족 구성원의 두드러진 특징의 감소, 역경(逆境, adversity) 등이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종종 교육적, 職業的인 강조점과 성취의 사회화 과정에 이전보다 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네 번째 가설은, 사회화와 동시기 과정은 같은 과정이라고 하는데 교사와 학습자 각각의 시

각에서 판단된다. 그러한 과정들은 A 아니면 B와 같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주어진 상태에서 단지 한 과정에 관련되는 것도 아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가설은 가족의 역사적인 방향(orientation)과 진행되는 사회화는 그 가족의 자녀들의 차이성(개성), 재능의 정도, 독특성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므로 한 아동의 가족에게서의 위치와 능력은 가족이 상호작용 속에서 '조직자'(organizer) 또는 행위자(agent)로 작용한다.

Ⅲ. 영재 아동의 가족 특성

영재 아동의 욕구와 특성은 영재 교육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확인된 바 있다(Terman, 1975; Heller, 1991; Heller & Feldhusen, 1986; Tuttle & Becker, 1983; Webb, Meckstroth & Tolan, 1982). 그러나 연구의 주류는 정의적 발달(Passow, 1991; Webb, 1995)보다는 인지 발달에, 가족보다는 개인 발달과 특징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된 바 있다(Colangeto, 1988; Frey & Wendorf, 1985; Moon & Hall, 인쇄중).

영재 가족에 관한 연구는 가족 체제의 독특한 역동성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는 가족이 특별히 옹호하는 가치, 인간관계, 생활양식, 스트레스 유발 요인(stressors), 영재 아동과 평재 형제간의 (갈등)관계, 지역사회와 학교와 같은 여타의 체제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가족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한다(김 정휘, 2000, 인쇄중; Colangelo & Dettman, 1983; Cornell, 1983; Csikszentmihalyi et al, 1993; Frey & Wendorf, 1985; Hackney, 1981; Jenkins & Friedman, 1991; Keirouz, 1989, 1990). 선행 연구 결과에서 밝혀낸 영재성 육성에 영향을 끼치는 가족 생활의 여러 측면들을~가족이 옹호하는 가치, 가족관계,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 여타의 체제와의 상호작용~그리고 기존 선행 연구상의 문제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가족이 옹호하는 가치

가족이 영재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존중하거나 옹호하는 가치는 가족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가족이 옹호하는 가치와 적성, 성취 학력, 자아 개념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남아보다는 여아에게서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가치 체계는 특별한 유형의 영재 자녀를 키우는 가족의 특징인 경향이 있다.

예컨대, 자녀의 IQ가 높거나 매우 뛰어난 성취를 하는 경우 그 가족은 자녀 중심이고 지지적이며 친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Kulieke & Olszewski-kubilius, 1989; Olszewski et al., 1987; Prom-Jackson, Johnson, & Wallace, 1987). 이들 가족의 경우 부모들이 교육과 성취에서 매우 높은 표준을 설정하고 숙제 검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적, 문화

적 활동을 추구한다(Getzels & Jackson, 1962). 영재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지각하며 그들의 자녀를 부모들은 긍정적으로 지각한다(Strom, Strom, Strom, & Collinsworth, 1994).

창의적 영재 아동의 가족은 아주 상이한 가치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족의 지배적인 가치는 독립성(자율성, independence), 예컨대, 창의적 영재 여성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상에서는 가정 환경이 학교에서 지지된 가치에 더하여 예술적 목표의 개발을 성원, 격려한다는 것이고(List & Renzulli, 1991), 창의적 영재 아동의 부모들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부모 노릇을 하며 사고와 느낌(feeling)을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영재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나타났다(Albert, 1978, 1980; Getzels & Jackson, 1962; Olszewski 등 1987; Robinson & Noble, 1991). 이들 가족 가치는 창의적인 인물의 가장 중요한 성격으로 부모와 사회, 유의미한 타인과는 달리 홀로 작업에 몰두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창의적인 사람의 성격·행동 특성인 것이다(Albert, 1978).

삶에 대한, 생업에 대한 높은 열정과 성취 지향적인 부모의 가치관, 긍정적인 인생관의 소유가 Bloom 연구(1985) 대상 부모에게서 발견된 특성이었다. 영재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일하는 것을 즐겼을 뿐 아니라 학습(배움)을 사랑하고 적극적이다(Goertzel & Goertzel, 1962).

어떤 가족의 경우에는 부모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가족이 옹호하는 가치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지각한다. 예컨대, 어떤 African American 부모들은 까다로운 개인주의, 엘리트주의, 동화(assimilation)를 가치화하는 데 모범이 되게 하는 등 부모들이 지각한 프로그램이 영재 자녀에게 유해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존중하는 가치를 지키지 않게 조장하고 우월성에 대한 자아 도취감에 빠져 人才 德의 덕목이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가족의 개입(intervention)은 조속함과 상관관계를 이룬다(미셸 사켈, 1999). 부모는 가장 직접적으로 음악 신동의 일상 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극진한 사랑으로 강제성 질은 심신 단련에 동기를 부여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활동 중인 창작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 조사(망제, 1983)에서는 전체 창작자 인구의 규모에 따라 작곡자들의 자서전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가지 요소가 음악적 재능의 시작과 수련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것은 피아노와 어머니이다. 이 둘은 서로의 분신(分身)이며 상상적 동일시의 부담을 참아내고 견딜 정도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다.

2. 가족관계

영재 아동은 특별히 학구적으로도 성공을 하며 잘 적응된 가족(Beach, 1988; Mathews, Baska, 1983, 1989a), 안정된 결혼의 성과인 경향이 있다(Barbe, 1981; Bloom, 1985; Van Tassel-Baska, 1983, 1989a). 진실로 어떤 학자들은 영재 아동의 가족들은 자아 실현 가족 체제의 전형(典型, exemplars)으로 생각을 한다(Frey & Wendorf, 1985; Jenkins-Friedman, 1991).

잘 기능하는 가족의 영재 아동은 친밀하고 지지적 관계, 자녀중심적 문화(child-centered culture), 권한 부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Bloom, 1985; Cornell, 1983; Cornell & Grossberg, 1987). 수준 높은 융통성과 결속, 탄력성 가족(resilient families)의 특징이 나타난다. Abelman, 1991; Bland, Sowa, & Callahan, 1994). 그러나 내구성과 응집성 수준이 강한 것이 개심(改心)시키는 가족(regenerative families)의 특징이다(McCubbin, Thompson, Pinner, & McCubbin, 1988). 그들의 인지, 정의적, 대인관계 성장을 배양시키는 최적한 환경(optimal environment)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ey & Wendorf, 1985; Jenkins-Friedman, 1991).

〈표 1〉 탄력적인 아동과 청소년의 특징

차 원	특 징	비 고
개 인	우수한 지적(학구적) 기능 발휘 뛰어난 예·체능·기계적 분야의 기능 발휘 순발력이 뛰어남 자아효율성(self-efficacy), 자신감, 수준 높은 성취 동기, 자기 신뢰, 재능(소질, Talents), 믿음(faith, 신념), 욕구좌절 감당력(frustration tolerance)	두뇌 회전·정보처리 대·소근육, 몸(신체)의 기교, 섬세함, 왕성한 활력(strong energy), 감수성, (고난도의) 음감과 몸동작(무용, 발레 등)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참을성)
가 족	보살피는 부모(관심, 격려, 자극을 주고지지하는 역할) 권위적인 부모 노릇, 온정, 구조적이고 수준 높은 기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유리함 지지적인 가족의 연결구조가 영재 자녀에게 집중	결코 부모 위주·과잉기대에 의한 일방적인 양육이 아님. 영재 자녀-부모간의 인간적 결속 영재 자녀가 나홀로 개척해야 하는 인생 진로 목표 설정이 아니라 이미 부모가 그 분야에서 이룩한(선점·先占한) 기반이 도움을 줌.
가족 이외의 유관인사·기관의 유대(有關性)	아동의 재능·영재성을 개발, 육성, 발휘하는 데 관련 있는 가족 외부 협찬인사나 기관의 조력·지원 친 사회적·교육기관의 연결·유대(유관有關)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여기에서 탄력성이란, 가정환경에서나 성장 발달 환경이 불우하거나 실조 상태에 있다든가 또는 장애(disorder)를 일으킬만한 고(高) 위험군인 아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생존하는 경우를 뜻한다. 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아동들이 양질의 안정적인 좋은 양육을 받는 경우,

나이든 아동의 경우는 유능한 성인(유의미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훌륭한 학습자와 문제 해결자일 때, 다른 사람과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회나 그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 학문, 예술, 운동, 기계적인 것이든 간에 ~에서 자기가 유능한 소질이 있을 때, 탄력성이 증가함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탄력성이 영재성 발휘나 역경(逆境, adversity) 극복에, 불우한 환경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데(예: 위기는 즉 기회와 도전이다)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탄력적인 아동과 청소년의 특징을 소개한다. 필자의 생각은 교육 기회의 균등(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96) 연구에서 Coleman이 밝힌 것처럼 환경에 대한 반응이나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및 태도·각성과 통제의 소재가 내재적인 경향이 있는 성향이 탄력성을 발동시키는 것 같다.

임상 장면에서의 주간 간호 활동으로서 탄력적인 동료 치료(resilient peer treatment, RPT)가 활용되고 있다.

이들 경향에서 제외된 주제가 소수 저소득층의 창의적 인물, 미성취 영재 아동 중에 임상 진료 대상, 영재 여성, 모든 영재가 人生이라는 드라마에서 다 성공하고 주인공 노릇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제 2인자, 낙오자의 삶·역할의 패적이다. (김 정휘, 1993, 1996; Albert, 1978; Exum, 1983; Frey & Wendorf, 1985; Friedman, 1994; Goertzel & Goertzel, 1962; Rimm, 1991, 1995).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재능이 있는 중산층 학생보다 안정된 결론의 성과가 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Friedman, 1994). 예를 들면, 767명의 영리하지만 저소득층이면서 소수 집단 학생을 조사한 결과 이 중에 59%만이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Prom-Jackson 외, 1994). 편부모 가정 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28%) 조부모와 어머니, 단지 조부모하고만 동거, 인척관계가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경우가(3%) 많아 규모로는 확대가족이면서 SES 상으로는 불우 계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 계층 학생 15명을 연구한 바 학업 적성 검사(SAT) 상에서 상위 1%의 득점을 나타냈으며(SAT~수학≥500, SA~언어≥430), VanTassel~Baska(1989b)는 이들 학생 다수가 이혼 가족의 자녀들이었다고 밝혔다. 확대가족 문제를 다룰 때 중시해야 할 것을 특별히 어머니 쪽의 할머니가 그들의 손자·손녀에게 빈번히 채근(comments)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러한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 유형(family types)이 전통적 분류가 아닐지라도 가족 형태가 재능 육성·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Friedman(1994)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의 경우 중산층·상류층 SES 가족과는 상이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재 자녀의 재능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영재 학생 연구 관련 문헌이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SES 수준에 따라 삶에서 강조하거나 중요시하는 가치관·생활 태도, 인생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는데, SES가 낮은 가족의 경우에 교육을 덜 강조하고 조직적 안정성, 정서적 안정(emotional security), 독립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미국 중심의 연구 결과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등교육의 완전 의무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데도 부모의 자녀교육열이

어느 나라보다 높고 근면성, 절약을 미덕으로 생활하고 있는 의식구조의 영향하에 국민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개선된 현상에 비추어 보면 SES가 낮은 가족의 가치관 목록에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본다(영재와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이지만, 이름이 꽤 알려진 사회·경제·정치·교육계 명사 중에 농촌 출신 즉 논두렁 천재가 많다).

창의적 영재 아동(creatively gifted children)과 저명한 성인의 가족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거나(strained) (정신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활동·생산을 위한) 긴장(나태, 낭비, 방종과 반대) 관계로 드물게 특징지을 수 있다. 이들 가족은 폐쇄성(closeness)보다는 독립성을 보다 많이 나타냈으며(Getzels & Jackson, 1962), 영재 학생의 가족은 학교 공부에서 성취를 잘 하지 못했으며, 갈등적인 상호작용 관계, 불안정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환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Dowdall & Colangelo, 1982; Reis 등, 1995; Rimm, 1991, 1995; Zuccone & Amerikaner, 1986). 유사하게 이들 가족이 영재 자녀의 미성취보다는 자녀 관련 문제(child-related problem)(예컨대, 저항적인 행동이나 식욕부진·anorexia, 대인관계상의 약간 심한 갈등문제) 때문에 가족 치료사(family therapist)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Frey & Wendorf, 1985).

영재 자녀의 존재 그리고 평재 형제들 속에서 자라는 영재 자녀의 존재가 가족의 역동적 관계 구조(dynamic relationship structure)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영재성이 만족스러운 결혼 적응, 가족관계, 그리고 수입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다(Balleiry & Koch, 1984). 영재 자녀에게 통제력을 행사하고 권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고려할 때, 가족 체제상 제 3의 부모(a third parent)가 되는 것이다(Hackney, 1981, 52). 이것은 두 명의 형제 중에서 한 자녀만이 영재일 경우 진실이다. 이들 가족의 경우 영재 자녀가 이 가족 구조에서 가장 강력한 구성원이 되며 아버지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막대한 헌신적인 희생을 감수한다(Cornell, 1984). 이와 관련된 많은 예가 있는데, Pablo Picasso의 경우 미술 관련 용품과 도구를 팔던 그의 아버지는 Picasso의 놀라운 우수한 재능을 발견하고는 화방 사업을 그만두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헌신적으로 했으며, Picasso의 형은 어려운 가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미술공부를 중단했다. 이와 같은 가족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돌봄·지원에 힘입어 Picasso는 오늘의 명성을 날리게 된 것이다. 세대간의 경계선이 희미해질 때 건강한 발달이 지연되기도 한다(Friedman & Gallagher, 1991; Minuchin, 1974; Zuccone & Amerikaner, 1986).

영재 형제가 있는 평재 아동은 영재가 아닌 평재 형제들 속에서 자라는 통제 집단에 비해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재 아동과 영재 아동 사이의 형제들 간의 나이 차이가 3세 미만의 경우 이들간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협을 모색하여 공존의 상생(相生)·포용관계를 이룩한다(Rimm, 1995).

결혼관계에서 영재 자녀의 영향을 다룬 연구는 적다(Keinuz, 1990). 그러나 임상적 장면에서 주목해보면, 영재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결혼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Black & Keirouz, 1992). 영재 자녀의 존재가 특별히 영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각 향성이 다를 때 부모

에게 갈등의 잠재적 원인이라는 것이 이론화 된 바가 있다(Cornell, 1983; Keirouz, 1990; Thiel & Thiel, 1977). 결혼 하위 체계상의 취약점은 미성취 영재 학생의 가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Frey & Wendorf, 1985; Newman, Dember & Krug, 1973; Rimm, 1995).

영재 자녀와 평재 자녀가 뒤섞여 있는 형제 관계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Frey와 Wendorf(1985)는 잘 기능하는 가족과 문제 가족 모두에게서 형제들이 정상적으로 형제들과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영재 아동의 존재가 형제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힌 연구자료도 있다(Ballening & Koch, 1984; Haensly, 1993; Peterson, 1977). 예컨대, 형제 중 한 명이 영재이고 다른 형제는 평재일 경우에 평재 형제가 영재 형제보다 낮은 자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Grenier, 1985). 영재 아동의 평재 형제(nongifted siblings)는 영재 형제가 없는 평재 아동인 통제 집단보다도 잘 적응하지 못함을 발견했다(Cornell, 1983, 1984). Silverman(1991)은 형제들간의 긴장관계는 영재성 그 자체에 의해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희생을 무릅쓰고 영재 자녀의 성취에 부모가 온갖 노력, 열의를 투자하는데 수반되는 문제라는 점을 시사했다.

3. 가족 스트레스와 적응

순응은 가족 연구와 가족 치료 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영재 가족에게 특별한 함의(含意)를 가지고 있다. 순응은 내·외부적으로 특유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idiosyncratic stressors)에 순응하는 가족의 능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재 자녀에 관해서 잘 기능하는 가족은 높은 수준의 적응성을 나타내고(Csikszentmihalyi 등, 1993; Friedman & Gallagher, 1991; Frey & Wendorf, 1985), 영재 자녀의 가족이 영재 자녀가 학교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순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imm, 1995; Zuccone & Amerikaner, 1986).

다른 특이성(exceptionalities)의 경우와 같이 영재성도 가족에게 특유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가족의 생활 양식을 영재성에 순응시키는 데 압력을 유발한다. 특유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어떤 가족에게는 대처 기제로 극복할 수가 있다(Minuchin, 1974). 위에서 제시한 설명과 관련하여 어떻게 영재성이 특유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함수작용을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영재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에게 가족 활동을 구조화하거나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 합리적 근거 또는 조직자(organizer)가 된다(Colangelo & Assouline, 1993). 영재성의 경향이 가족 체제를 구조화하는 데 영향을 주는 데 가족 자원을 압도하거나 가족관계를 경사지게 했을 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 영재 아동의 가족이 영재 자녀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들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Bloom, 1985; Hackney, 1981).

영재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장기간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부담에 따

른 의존성 때문에 소진감을 느끼고, 아울러서 가족 자원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감지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그 외에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학교·교육기관이 있는 새로운 지역사회로 이사가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되고, 권위 있는 대가(大家)에게 특별지도를 받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고액의 경비 부담, 일반 학교의 교육과 교사, 평재 아동을 불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외에 영재 아동의 개인적 발달 면에서 동시성 장애(asynchronous)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가족에게 특이한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영재 아동은 종종 발달 단계별 규범적 기준에 따라 발달이 진행되지 않는다. 즉 이들은 인지, 사회, 정서적 발달 사이에 엄청난 상치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상치는 지적 영재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예컨대, 여러 연구자들이 IQ가 증가하는 것처럼 인지적 자아개념과 사회적 자아개념의 증가 사이에 상치가 발견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Katz, 1981). 부모는 영재 자녀의 특이한 발달 특성과 영재 자녀의 욕구 및 이들 간의 상치에 관해 근심한다. 이러한 불안은 모든 가족 체제에 영향을 끼친다.

오늘날 영재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되었고 많은 아동이 영재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과정이 가족 체제 상에서 특유한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서 함수작용 관계로 기능하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이용 가능한 경험적 증거가 없다. 분명한 것은 분류의 정확성과 함축적 의미를 부모가 동의하지 못할 때 가족이 긴장하는 원인이 된다(Colangelo, 1991; Cornell, 1983).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영재(gifted)라는 용어가 상이한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Colangelo, 1991; Silverman, 1991). 관련 연구 자료를 소개하면 Silverman(1986)은 아버지는 영재성을 성취도(achievement)로 지각하지만 어머니는 발달상의 조숙성(developmental precocity)과 관련시켜 지각한다는 것을, 이것을 자녀가 처음으로 분류되었을 때 보다 강하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다(Colangelo & Brower, 1987). 영재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상담센터에 오는 많은 부모들이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이 영재성 발달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불확실하고 영재 자녀의 진로에 대해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필요한,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이들의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은 영재 자녀와 관련된 부모의 분노와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Keirouz, 1990). 고 지능 영재 아동(IQ>160)의 경우 스트레스와 순응 압력이 증가했으며, 고 지능 영재 아동의 20~25%가 심각한 사회심리적 부적응의 증거가 제시되었고, 이것은 정상 인구에서 발견되는 경우보다 두 배의 비율이라는 것이며(Robinson & Noble, 1991), 매우 영리한 아동의 경우 사회적 고립, 소외감, 고독함과 관련된 많은 분투를 하며, 그들의 가족도 그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뛰어난 영재 자녀의 부모들은 장기간의 재능 개발 교육비 부담에 따른 과중한 경제적 투자,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학교와 관련된 욕구 불만,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Silverman & Kearney, 1989).

4. 가정 외부의 다른 체제와의 상호작용

영재 자녀를 둔 가족들은 진공 상태(공백, vacuum)에서, 또는 영재 이웃들만이 따로 모여사는 외딴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학교, 이웃, 친구들과의 연결망을 이루면서, 지역사회에서 다른 평범하고 다정다감한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살고 있다. 영재 가족 체제의 역동성에 가족 외부의 체계가 영재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연구(Moon, 1995)는 영재 연구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영재 아동의 사회화, 사회성, Gardner가 중다지능론에서 지능의 한 측면으로 포함시킨 대인관계에 관한 능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가. 학교 체제

학교(교육)는 영재 아동의 가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영재 학생에게 적합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영재 자녀를 기르는 가족이 많이 공통적으로 인용되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 알려진 바 있다(Hackney, 1981; Wierczerkowski와 Prado, 1991). 어떤 가족은 불만족스러운 학교 분위기를 언짢아하며 가정~학교 관계의 반목(반감·反感, an adversarial home ~ school relationship)을 나타내기도 한다. (Wendorf & Frey, 1985; Rimm, 1995). 영재 학생의 교육지도를 담당한 교사의 자질(품성·전문성)에 관한 문제제기나 불만, stress에 관한 연구자료는 발견이 안 된다. 아울러서 상담소를 찾은 영재 가족이 공통적으로 많이 호소하는 걱정은 학교에서 도전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Feger와 Prado, 1986; Feldhusen & Kroll, 1991). 이 문제 해결은 영재 자녀를 키우는 가족 상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학교 교육 환경·풍토를 개선시키는 것이 그 처방이다.

많은 가족은 영재 학생에 대하여 학교가 적합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비로소 가족 체제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보고했다(Moon, 1995). Ford(1994)는 재능이 있는 African American 학생의 경우에 강력한 가족-학교-지역사회 유대(connections)를 통한 탄력적인 환경이 영재성 육성의 최상의 방안이 된다는 것을 시사했다. 가족이 자녀에게 제공되는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흡족하게 생각하고, 학교의 노력에 진정으로 사의를 나타내고, 학교와 부모 사이의 대화의 주제를 가족 구성원과 분담하고, 학교에서 자극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학교가 영재 가족과 의사소통을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반영하면 가정과 학교 사이의 갈등 수준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Frey & Wendorf, 1985; Moon, 1995).

학교 내에서 영재 아동의 미성취(under performance)나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 LD)는 그 가족이 상담소를 찾은 가장 공통적인 이유인데(Rimm, 1986; Silverman, 1991) 이 문제는 영재 학생 개인, 학교 체제, 가족 체제, 이 세 가지의 결합이 근원인 매우 복잡하고 얽혀서 나타난 현상이다.

학교에서 영재 학생들의 미성취는 주로 다음과 같은 특성과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

- 특성

- (1) 학교에 대해 부정적이다(Anti-school).
- (2) 말을 잘 하지만 글씨는 악필이다.
- (3) 의견상 따분해 보인다.
- (4) 침착하지 못하고 부주의하다.
- (5) 사적인 세계에 열중한다.
- (6) 이해가 더딘 학생이라서 짜증이 나고 재치가(요령이) 없다.
- (7) 나이 든 학생과 친하게 지낸다.
- (8) 자기 비판적이다.
- (9) 또래와 교사와 불만족스런 사교적 관계
- (10) 정서적 불안정성
- (11) 의견상으로 오만하다.

뿐만 아니라,

- (1) 동기 유발이 되었을 때 창의적이다.
- (2) 빨리 배운다.
- (3) 문제 해결력이 있다.
- (4) 의문을 일으키는 문제에 답변할 수 있다.
- (5) 동기 유발이 되었을 때 과제 해결을 견디어 낸다.
- (6) 추상적인 사고를 표출한다.
- (7) 개방적인 문제(비 형식적인 문제)에 반응하는 재능이 있다.

- 원인

- (1) 거부적 가족 관계에 의한 반응, 관심이나 통제의 필요성의 표현
- (2) 영재성·재능에 어울리지 않는(부적합한~) 비자극적인 학교 환경
- (3) 문화적인 차이
- (4) 교사와 학생·가족간의 不相合
- (5) 융통성 없는 교실 환경과 영재 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 교육과정
- (6) 영재성, 영재 학생의 학습·발달 특성에 둔감한·무지한 무능하고 권위·통제 위주 의 교사(영재 교육에 대해 아는 바 없는 일반 교사의 지도력)
- (7) 동조 압력, 경쟁에 대한 압력, 창의력에 대한 무반응
- (8) 학습 방법(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부하지 않는 경우
- (9) 학교~가정간의 관계가 적대적·갈등 관계에 있을 경우
- (10)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못 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 둔감한 사회가 우리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Power game 논리에서 공존의 지혜를 발견하고 은둔한다.

(11) 교육부, 교육청, 개별학교 간에 교육행정·장학 지도상에서 영재교육에 관한 단편 학교 교육 체제, 그리고 영재교육 이론과 실제에 정통한 관련 전문가(장학진) 부족.

이와 관련된 부작용은, 적대감, 비동조성, 반항, 사회적 미숙, 자아개념 손상, 학구적인 생활에 흥미 상실, 수양의 부족, 정보처리 능력에 장애, 공간 학습 양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Dowdall & Colorngelo, 1982; Jeon & Feldhusen, 1991, 1993; Silverman, 1991). 그 외에 주의집중 장애가 수반되는 과잉행동 장애(ADHD)나 ADD 증상을 갖고 있는 영재 아동의 경우 미성취나 가족 체제의 스트레스 및 갈등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Moon, Zentall & Grsicovic, 1997).

나. 동료와의 관계

일련의 연구에서(Robinson & Noble, 1991; Tannenbaum, 1962) ① 매우 뛰어난 영재 아동 (highly gifted children) ② 매우 영리한(bright), 학구적인(studious), 비운동적인 영재 아동을 연구한 결과, 동료로부터 이들이 배척(rejection)을 받는다는 것과, 동료들에게서 인기 없는 영재 학생들의 경우 자아개념 손상, 교실에서 부적합한 행동, 우유부단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잘 생긴 나무는 재목으로 쓰이기 때문에 벌목의 대상이 되어 못생긴 나무가 산을·자연을 지킨다는 말이 쓰이는 것처럼, 잘난 체 하다가 왕따 대상이 되는 것이 생존에, 적응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천적 지능 (Practical Intelligence, PI. Sternberg, 1996)의 경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뛰어난 성취를 하는 어떤 청소년들 중에는 brain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도)으로 부인, 주의 산만, 이상한 짓, 미성취와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Brown & Sternberg, 1990; Cross, Coleman & Stewart, 1994).

IV. 논 의

영재 가족 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 자료의 결점과 미래의 연구 주제에 관한 시사점 및 선행 연구 자료에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촉매 요인을 <표 2>에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서 이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 논의하고자 한다.

1. 영재 가족에 관한 기존의 연구 자료 논평

가. 체계적 관점의 결여

체계적 관점에 의해서 지도된 영재 아동의 가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영재 교육 분야에서 체계적 사고와 관련된 훈련받은 연구자(사회·행동과학 연구법·고급 통계 방법론 분야에서-)가 부족하다. 재능 발달 심리학(psychology of talent development) 분야, 영재교육 심리학에서 그리고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가족 연구와 가족 치료와 같은 체계적 분야에서 이론과 실재를 겸비하는 연구자가 적다.

나. 연구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의 대부분이 백인, 중산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소수의 연구가 낮은 SES, 농촌 영재 가족의 특성을 검증한 연구이고 소수민족의 영재 아동을 연구했으며 비교 문화적 연구 역시 부족하다. 임상장면(상담소를 찾아온 사례 중심)에서 한 연구도 드물며, 중다 재능 영역에서 가족 양태를 검증한 연구는 더욱 드물고(Bloom, 1985; Csikszentmihalyi 등, 1993), 대체로 영재성의 단일 차원적 정의(예: IQ 득점)에 기반을 둔 영재 가족에 관한 연구가 주류이며(Terman, Stein & Heinze, 1960) 미술, 연기·무용과 같은 예능이나 창의적 영재(註 4), 지도력(leadership), 수학, 과학, 문학, PC 분야와 인문사회과학과 같은 학구적인 면에서 영재성(studious gifted), 인간 관계 재능(interpersonal talent) 영역에서 영재성 연구는 무시되고 있다.

다. 가족 구조 연구가 제한되어 있다

편부모 가족, 이중(복합) 핵가족(이혼한 부부가 각기 재혼하여 그대로 한 채의 집이나 이웃에 사는 가족, binuclear families), 복합(혼성) 가족(이혼·재혼 등으로 혈연이 없는 가족이 포함되는 가족)과 같은 여타의 가족 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드물다. 사별(死別)과 조실부모(早失父母), 이혼 및 재혼 과정에서 영재 자녀가 받는 충격에 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라. 영재를 모집단으로 연구된 도구 부족

양적인 연구에 이용되는 도구의 대부분을 개관하면 비 영재 모집단을 대상으로 규준을 설정했으며 개발되었다. 따라서 영재 아동과 그 가족에게 이들 도구를 응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성·내용 타당도가 부족할 것이다. 영재 학생의 수준에 알맞는 창의성, 실천적 지능(Practical Intelligence, PI)검사, 비판적 사고력 검사, EQ 검사, 갈등해결 검사(Conflict Solution Test, CST) 등이 필요하다.

마. 지식 기반의 격차

기존 연구의 대다수가 초등학교와 청소년 영재 학생의 가족, 부모 노릇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고, 그 외의 가족 발달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영재 개인의 배우자간의 역동적 결혼 생활, 즉 이성교제(구혼과 연애 양상), 배우자 선택, 결혼 관계, 이혼·재혼.

자녀 양육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생의 역정으로서, 전인(全人, whole person), 인간(개인)으로써 그의 삶의 모습 전체를 조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영재 가족 연구에 있어서 단면적, 회고적 연구뿐만 아니라 일찍이 Terman(1925) 등이(Lox, 1926; Terman & Oden, 1947, 1959) 시도한 연구처럼 영재의 life cycle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적어도 한 명의 영재 가족을 연구할지라도 비교 집단(가족) 없이 영재 집단만을 대상으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영재 가족의 생애 연구 주제

영재 가족에 관한 기존의 연구 자료에서 나타나는 한계는 영재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중다차원의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는 종단적 연구가 되었든 어떤 다른 연구가 되었든 연구 방법을 세련화, 정교화해서 원인-과정-결과, 적성-처치, 임상적 접근 등 다차원적 접근과 생애적 연구(life-span research)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적어도 다섯 가지 제안을 한다(Moon, Jurich & Feldhusen, 1998, 93-95). 그리고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도 동시에 필요하다.

가. 영재 가족의 특성

영재 몇 명을 대상으로 연구하든지 간에 가족 체계의 광범위한 다양성에 관한 특성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가족과 기능에 이상이 있는 가족, 많은 천재의 사례에서 발견되는 광기(狂氣, madness)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노력은 국제 규모일 필요도 있으며, 모든 사회 경제적 배경으로부터 다양한 문화권의 가족의 역동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상이한 가족 구조가 이 연구 주제에 세심한 배려 하에 포함되어야 하고, 상이한 수준과 유형의 영재성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물론 질·양적 연구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영재 집단의 특징을 묘사할 수 있는 세부적인 개인적·체계적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구체화하는 등 이러한 처방적 노력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영재 가족과 영재 개인에 관한 연구 분야의 연구자들 사이의 협조는 이 연구 수행의 효과를 위해서 강조되어야만 한다. 영재 남편과 평범한 가족(부인을 포함하여), 영재 남편·자녀의 결혼, 이성교제 관계, 영재 부인과 평범한 남편·가족과의 관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 재능 발달을 촉진하는 가족의 역할

영재성/재능(G/T) 발달에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가 밝히고 있는 바이지만,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회고적이고(retrospective) 본질적으로 불간섭주의자(noninterventionist)에 의한 연구이다. 본인은 종단적 관점에서 영재 자녀의 재능 발달에 가족이 어떠한 역할(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재 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된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결국 영재 아동만이 아니라 모든 아동의 발달 환경과, 가족이 자녀의 최상의 발달을 위해 어떻게 지원해줘야 할 것인가를 논증해 주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모든 가족에게 일반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아울러서 관련 모형(model)을 구안,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다. 전 생애를 통해서 영재 개인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촉진하는 가족의 역할

영재 개인의 사회, 정서적 욕구는 분화되어 있고 때때로 비동시적이다. 이들 가족은 그래서 결속(유대)과 교육적인 가족 관계의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specialized guidance)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동료관계, 배우자 선택, 배우자 관계, 장애가 있는 영재와 그 부모·가족간의 역동적 관계, 부모~자녀 관계, 영재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비동시성에 있어서 사회·정서적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영재 가족과 학교(교사)간의 관계

기존의 연구는 영재 아동이 개입을 할 때 가족~학교 관계가 독특하고 역동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들 특별한 역동성은 영재 아동에 대한 학교 기반 판별, 학교가 재능 학생의 욕구에 부응하는 데 실패하거나 영재 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이유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이들 역동성에 대한 연구는 영재 아동의 반 정도가 가족~학교 협력을 강화하여 발달 및 검증을 개입시키고자 할 때 가족~학교 관계의 본질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기울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 가족, 학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호적·순환적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여 평재 중심의, 교사 중심의 관료적인 기존의 학교·교실 교육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영재 학생의 위상을 살펴보면, 교실은 영재 학생의 적응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개선, 완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영재 학생들은 영재교육론에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어 있는 일반 교사들로부터 더 많은 비판을 받고 그들의 주도성, 비동조성은 더 자주 무시되기가 쉽다. 교사로부터의 이러한 취급은 영재 학생의 자기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더 중요하게는 학급의 다른 동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다른 아동들도 교사들

의 행동을 본뜨기 학습(modeling)하여 교사와 비슷하게 부정적인 감정, 태도를 영재 학생에게 표현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한 연구상의 통찰력과 관련 연구가 부족한 것 같다.

마.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

다음 10년 동안 이루어져야 할 연구 주제는 영재 개인의 부부와 가족에게 초점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들이 가족 상담과 가족 치료를 왜 요청하는지 이들에게 유익하고 효과적인 개입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가족 상담과 가족치료 상에 관련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면,

- 영재성이 가족 치료의 중요한 초점인가.
- 가족 치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법인가.
- 건실하고 안정된 부부·가족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영재 개인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 영재 인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인간사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가족 카운슬러나 가족 치료자가 소수 아닌가. 또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 평가할 것인가.
- 자녀가 영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양육·학교 교육 실재에서-) 본질과 처방은 무엇인가.

V. 끝맺음 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영재성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환경 변인에 관한 촉매 요인을 예시했다(<표 2>을 참조). 영재 개인은 그가 속해 있는 문화적, 사회적, 가족·가정,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설명을 전제로 연구가 필요한 미해결의 연구 과제를 예시하면 또 부모나 유의미한 타인의 견해, 모범모형에 대한 동일시의 정도, 성차에 따른 특성과 차이, 영재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영재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부모, 평재 형제, 교사, 제도권 학교 외부에서 그를 교육하는 교사, 조부모에게 끼치는 영향, 시대 정신, 능력은 뛰어나지만 시대를 잘못 만났거나 한 시대가 그를 局外者(outsider)로 취급했거나 사회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거나 해서 진가(眞價)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인간으로서 영재 개인의 부정적인 측면, 영재 개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안목, 탄력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사회, 영재 가족, 영재 자신의 몫은 무엇인가, 영재들의 세계에서 지배세력이 존재하는가, 어린 영재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명성·저명에 어울리는 대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장 발달 환경이 가난하고 불우하며 역경에 처한 어린 영재를 어떻게 보살펴야 할 것인가, 국가·사회적으로 인적 자원으로써 고급두뇌에 대한 대접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에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영재와 현인(賢人)은 동일시 할 수 있는가, 인류 역사는 영재들에 의해서만 진보, 발전하는가, 수월성과 평등주의는 잘못된 이분법이 아닌가

등 탐구해야 할 연구 주제가 참으로 많다.

아울러서 친권자인 부모가 영재 자녀에게 어떤 점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뿐만 아니라 영재 자녀가 부모와 유의미한 타인(조부모·권위 있는 전문가(mentors), 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도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달심리학의 측면에서 영재 청소년의 생리적 변화, 성적인 적응, 또래 수용, 직업 선택, 문화·교양 활동 기회 제공에 관련된 부모의 대처 방식과 노력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Bloom(1982)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어린 수학자, 운동 경기자, 그리고 명성이 알려진 음악가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이 가족과 함께 보낼 때 어떤 특별한 활동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월한 성취를 위해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논문이 Bloom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 있는 영재성/재능(G/T)의 발달에 대한 가족·가정의 기여 양상은 이 희귀하고 찬사를 받아 마땅한 뛰어난 재능을 우연히 하늘이 내린 천부적 또는 자연적 재능과 동일시하는 상투적 생각을 바로 잡는 데 다소나마 일조한다면 필자의 의도는 달성되는 것이다.

영재 자녀의 가족·가정 환경상의 역동적인 특성이 자녀의 영재성 발달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관한 선행 연구 자료를 개관했는데 제시된 제 특성이 일관성이 없어서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Rimm, 1995)을 그리고 너무 이상화하지(예: 방어자 대 졸렬한 양육 방식) 말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표 2〉 영재성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촉매 요인

	순기능	역기능
영재 자신	학문적·비학문적 성취 창의력, 엄청난 노력과 몰입, 용기 특별한 존재로서 자아에 대한 지각 형성 직관력, 통찰력 영재·재능과 관련된 매력과 카리스마 성취 동기와 자아 강도, 왕성한 에너지 초·중학교 시절에 우호적인 친구 관계 운명(생애)에 대한 의식(각성 또는 통제) 목표 지향성 개인적으로 매력이 있는 성품 지적 호기심, 은유적·비판적, 문제 발견 과 같은 탐구적 사고 조속성, 유전적으로 결정된 능력 (예: Golden Chromosome) 여성운동의 영향(효과)(effect of the women's movement)	영재 학생의 경우 : (1) 모범적인·동일시의 대상으로서 역할 모형(sex-role model) 부족 (2) 성(gender) 차와 특성에 따른 이점과 불리한 점 (3) 자기 효율성 강화·유인자극 부족 (4) 지식 기반 사회, 두뇌 경쟁 시대와 공 주병 논리의 슈퍼모델, 운동선수, 텔 런트, 미스코리아가 선망의 대상이 되 는 이중적인 가치관의 혼재 속에서 나는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감 갈등, 전자보다 후자를 더 우 대·선망하는 사회 풍토 부모·학교에서의 과잉 기대 비동조성, 정체감 확립에 갈등 체제나 시대사조에 국외자(outsider)

	순기능	역기능
영재자신	예체능에 대한 감수성 조속형과 대기만성형 논쟁(논증)을 즐김 시각적 모형과 체제에 대한 통찰력 학구적임, 착상의 생산자, 정보처리 능력 예체능 분야·과학 분야의 결정적 시기 홀로 작업에, 연기에, 피아노, 악기, 가창 (성악) 연습에 반복적으로 몰두, 집착 공·사교육에의 학교교육과 사사	우울증 부정적인 학문적 자아개념(예: 공부가 좋은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의 우등생, 사회에서 열등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정신적으로 학교(공부)에서 이탈 타인을 경시(disregarding others) 위기인 동시에 기회와 같은 양면성을 띤 수준 높은 경쟁·도전의 강도(強度) 및 탈진 영재성·재능이 사회적으로 수용·환영받지 못한다는 관점 초·중등 교육 실조
학교	학교 외부의 역량 있는 전문가의 지도 조력관계(helping relationship)에 의한 인사와의 만남(인간관계) 인재를 발견하고 격려, 지원하는 풍토	영재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에 따른 분노) 및 교육에 대한 불신 교육 내용상에 도전감 부족 등교 회피증
가족, 가정환경	가족이 옹호하는 가치관 탄력성 가족 중산층·상류층 가족 가족의 헌신적 자극, 지원과 희생과 높은 기대와 결합 부모의 양육방식 가족 내에서 위상 역할모형의 이용가능성 기회요인 시대정신 삶에 대한 의욕적인 높은 열정과 성취 지향적인 부모의 가치관 아동기의 관심사에 대한 자극, 격려, 수용 삶의 중요한 사건 성공과 실패 경험 가족 구조 형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신뢰와 인식은 신앙이다 가정 문화의 전통 유전적 기제(Golden Chromosome) 교양 있는 가정(cultured homes) 상합(相合) 가정 통합적이고 분화된 형태의 복합 가족 가족 규모와(대체로 소규모 가족)와 출생 순서	영재 자녀와 평재 형제 사이의 갈등 사회적 고립, 소외감, 고독 영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 심신의 질환(정신 질환) 및 장애 역경(逆境, adversity. 예: 早失父母, 이혼) 또는 시련 불우(disadvantaged) 및 문화실조 가정 지나치게 몰아대고 북아대는 가족 어린 신동을 너무 일찍 대중 공연에 노출, 압력 가중 정서적 박탈감 불상합(不相合) 또는 불협화음 가족, 가정 과학·문화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편견 학교와 교사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와 메시지 전달

참 고 문 헌

- 김 정휘(1997). 영재학생, 그들은 누구인가. 강원일보, 1997. 9. 30. 제 14805호.
- 김 정휘, 주 영숙(1998). 교육심리학 탐구(전정판). 서울: 형설출판사, 213.
- 김 정휘 편저(1993). 英才 學生: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교육과학사.
- 김 정휘 편저(1996). 영재 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필요·충분 조건들: 가정, 영재 자신, 학교의 역할. 서울: 원미사.
- 전 경원(2000). 한국의 새천년을 위한 영재교육학. 서울: 학문사.
- 정 희경, 율김(1999). 천재의 역사 1, 2. 서울: 끌리오. 175-216.
- Abelman, R. (1991). Parental communication style and its influence on exceptional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Roeper Review*, 14(1), 23-27.
- Albert, R. (1978).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regarding giftedness, families influence, and the achievement of eminence. *Gifted Child Quarterly*, 22, 201-211.
- Albert, R. (1980). Family positions and the attainment of eminence: A study of special family positions and special family experiences. *Gifted Child Quarterly*, 24, 87-95.
- Ballering, L. D., & Koch, A. (1984). Family relations when a child is gifted. *Gifted Child Quarterly*, 28, 140-143.
- Barbe, M. (1981). A study of the family background of the gifted. In W. Barbe & J. Renzulli (Eds.), *Psychology and education of the gifted* (3rd ed., pp. 302-309). New York: Irvington.
- Beach, M. (1988). Family relationships of gifted adolescents: Strong or stressed? *Roeper Review*, 10, 169-172.
- Black, K. N., & Keirouz, K. S. (1992). *Family relations when a child is gifted*. Unpublished Manuscript.
- Bland, L. C., Sowa, C. J., & Callahan, C. M. (1994). An overview of resilience in gifted children. *Roeper Review*, 17, 77-80.
- Bloom, B. S. (Ed.). (1985). *Developing talent in young people*. New York: Ballentine Books.
- Boss, P. G., Doherty, W. J., LaRossa, R., Schumm, W. R., & Steinmetz, S. K. (Eds.). (1993).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New York: Plenum Press.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roderick, C., & Smith, J. (1979).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2). New York: Free Press.

- Brown, B. B., & Steinberg, L. (1990).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al acceptance: Skirting the "brain-nerd" connection. *Education Digest*, 55, 55-60.
- Clasen, D. R., & Clasen, R. E. (1991). the acceptance-rejection model (ARM): Adolescent responses to the gift vs. group conflict. In N. Colangelo, S. G. Assouline, & D. L. Ambrosion (Eds.), *Talent development: Proceedings From the 1991 Henry B. and Jocelyn Wallace National Research Symposium on Talent Development* (pp. 553-556). Unionville, NY: Trillium.
- Clasen, D. R., & Clasen, R. E. (1995). Underachievement of highly able students and the peer society. *Gifted and Talented International*, 10, 67-76.
- Colangelo, N. (1988). Families of gifted children: The next ten years. *Roeper Review*, 11(1), 16-18.
- Colangelo, N. (1991). Counseling gifted students.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273-284). Boston: Allyn & Bacon.
- Colangelo, N., & Assouline, A. (1993). Families of gifted children: A research agenda. *Quest*, 4(1), 1-3.
- Colangelo, N., & Brower, P. (1987). Labeling gifted youngsters: Long-term impact on families. *Gifted Child Quarterly*, 31, 75-78.
- Colangelo, N., & Dettman, D. F. (1983). A review of research on parents and families of gifted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50, 20-27.
- Coleman, L. (1985). *Schooling the gifted*. Menlo Park, CA: Addison Wesley.
- Cornell, D. G. (1983). Gifted children: The impact of positive labeling on the family syste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3(2), 322-335.
- Cornell, D. G. (1984). *Families of gifted children*. Ann Arbor, MI: UMI Research Press.
- Cornell, D. G. (1990). High ability students who are unpopular with their peers. *Gifted Child Quarterly*, 34, 155-160.
- Cornell, D. G., & Grossberg, I. N. (1986). siblings of children in gifted program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9(4), 253-264.
- Cornell, D. G., & Grossberg, I. N. (1987). Family environment and personality adjustment in gifted program children. *Gifted child Quarterly*, 31, 59-64.
- Cox, C. M. (1926).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2. The early mental traits of three hundred genius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ross, T. L., & Coleman, L. J., & Stewart, R. A. (1994). *Psychosocial diversity among gifted adolescents: An exploratory study of two groups*. *Roeper Review*, 17, 181-185.
- Csikszentmihalyi, M., Rathunde, K., & Whalen, S. (1993). *Talented teenagers: The roots of*

- success and failu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ttman, D. F., & Colangelo, N. (1980). A functional model for counseling parents of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24(4), 158-162.
- Dowdall, C. B., & Colangelo, N. (1982). Underachieving gifted students: Review and implications. *Gifted Child Quarterly*, 26, 179-184.
- Emerick, L. J. (1992). Academic underachievement among the gifted: Students' perceptions of factors that reverse the pattern. *Gifted Child Quarterly*, 36, 140-146.
- Exum, H. A. (1983). Key issues in family counseling with gifted and talented black students. *Roeper Review*, 5(3), 28-31.
- Feger, B., & Prado, T. (1986). The first information and counseling center for the gifted in West Germany. In K. A. Heller & K. f. Feldhusen (Eds.), *Identifying and nurturing and nurturing the gifted: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 139-148). Toronto: Hans Huber.
- Feldhusen, J. F., & Kroll, M. (1991). Boredom of challenge for the academically talented.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7(2), 80-81.
- Feldman, D. H. (1986). *Nature's gambit*. New York: Basic Books.
- Fine, M. J., & Carlson, C. (Eds.). (1992). *The handbook of family-school intervention: A systems perspective*. Boston: Allyn & Bacon.
- Ford, D. Y. (1994). Nurturing resilience in Black youth. *Roeper Review*, 17, 80-84.
- Frey, K., & Wendorf, D. J. (1985). Families of gifted children. In L. L'abate (Ed.), *Handbook of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Vol. 2* (pp. 781-809). Homewood, IL: Dorsey Press.
- Friedman, R. C. (1994). Upstream helping for low-income families of gifted studen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5(4), 321-338.
- Friedman, R. C., & Gallagher, R. J. (1991). The family with a gifted child. In M. J. Fine (Ed.), *Collaboration with parents of exceptional children* (pp. 257-272). Brandon, VT: CPPC.
- Friedman, R. C. & Rogers, K. B. (Eds.). (1998). *Talent in contex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enshaft, J. L., Greenbaum, S., borovsky, S. (1995). Stress and the gifted. In J. L. Genshaft, MBirely, & C. L. Hollinger(Eds), *Serving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A resource fot school personnel*(pp. 257-268). Austin, TX: Pro-Ed.
- Getzels, J., & Jackson, P. (1962). *Creativity and intelligence*. New York: Willey.

- Goertzel, V., & Goertzel, M. G. (1962). *Cradles of eminence*.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Green, K, Fine, M, J., & Tollerfson, N. (1988). Family systems characteristics and underachieving gifted adolescent males. *Gifted Child Quarterly*, 32, 267-272.
- Grenier, M. E. (1985). Gifted children and other siblings. *Gifted Child Quarterly*, 29, 164-167.
- Gross, M. U. M. (1989). The pursuit of excellence or the search for intimacy? The forced-choice dilemma of gifted youth. *Roeper Review*, 11, 189-193.
- Gruber, H, E. (1989). The evolving systems approach to creative work. In D. B. Wallace & H. E. Gruber (Eds.), *Creative people at work* (pp. 3-2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ckney, H. (1981). The gifted child, the family, and the school. *Gifted Child Quarterly*, 25(2), 51-54.
- Haensly, P. A. (1993, August). *Development of giftedness among siblings. A case study of differences and familial microcosms*. Paper presented at the 10th World Congress on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World Council for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Toronto.
- Heller, K. A. (1991).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 longitudinal study. *European Journal of High Ability*, 2(2), 174-188.
- Heller, K. A., & Feldhusen, J. F. (Eds.) (1986). *Identifying and nurturing the gifted: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Lewiston, NY: Hans Huber.
- Howe, M. J. A. (1999). *The Psychology of High Abilities*. Houndmills: MACMILLAM PRESS LTD. 19-49.
- Janos, P. M., & Robinson, N. M. (1985). Psychosoci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ly gifted children. In F. D. Horowitz & M. O'Brien (Eds.), *The gifted and talente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 149-195). Hyattsville, M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enkins-Friedman, R. (1991). Families of gifted children and youth. In M. J. Fine & C. Carlson (Eds.), *The handbook of family-school intervention* (pp. 175-187). Boston: Allyn & Bacon.
- Jeon, K.W., & Feldhusen, J. F. (1991). Parents' and teachers' perceptions of underachievemen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Gifted International*, 7, 64-72.
- Jeon, K., & Feldhusen, J. F. (1993).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f social-psychological factors of underachievement among the gift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Gifted International*, 9, 115-119.

- Katz, E. L. (1981). *Perceived competence in elementary level gift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Denver, CO.
- Kearney, K. (1992). LIFE in the asynchronous family. *Understanding Our Gifted*, 4(6), 1, 8-12.
- Keirouz, K. S. (1989). *The Parent Experience Scale: A measure designed to identify problem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IN.
- Keirouz, K. S. (1990). Concerns of parents of gifted children: A research review. *Gifted Child Quarterly*, 34(2), 56-63.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Kline, B. E., & Meckstorth, E. A. (1985). Understanding and encouraging the exceptionally gifted. *Roepers Review*, 8, 24-30.
- Kulieke, M. J., & Olszewski-Kubilius, P. O. (1989). The influence of family values and climate on the development of talent. In J. L. VanTassel-Baska & P. Olszewski-Kubilius (Eds.), *Patterns of influence on gifted learners: The home, the self, and the school* (pp. 40-59).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Leviton, L. P. (1992). Geometric relationships in the gifted family. *Understanding Our Gifted*, 4(6), 1, 13-14.
- List, K., & Renzulli, J. S. (1991). Creative women's developmental patterns through age thirty-five.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7, 114-122.
- Mathews, F. N., West, J. D., & Hosie, T. W. (1986). Understanding families of academically gifted children. *Roepers Review*, 9(1), 40-42.
- McCubbin, H. I., & Figley, C. R. (1983). *Stress and the family: Coping with normative transitions*. New York: Brunner/Mazel.
- McCubbin, H. I., & McCubbin, M. A. (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247-254.
- McCubbin, H. I., & Patterson, J. M. (1983). Family transitions: Adaptation to stress. In H. I. McCubbin & C. R. Figley (Eds.), *Stress and the family: Coping with normative transitions*. New York: Brunner/Mazel.
- McCubbin, H. I., Thompson, A. I., Pirner, P. A., & McCubbin, M. A. (1988). *Family types and strengths: A life cycle and ecological perspective*. Edina, MN: Bellweather Press.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uchin, S., & Fishman, H. C. (1981). *Family therapy techniqu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n, S. M. (1995). The effects of an enrichment program on the families of participants: A multiple case study. *Gifted Child Quarterly*, 39, 198-208.
- Moon, S. M., & Hall, A. S. (in press). Family therapy with intellectually and creatively gifted childre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 Moon, S. M., Jurich, J. A., & Feldhusen, J. F. (1998). Families of Gifted Children: Cradles of Development. Friedman, R. C., & Rogers, K. B. (Eds.), *Talent in Context: Histor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Giftedn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oon, S. M., & Thomas, V. (1997, September). *Families of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A training project*. American Association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Atlanta, GA.
- Moon, S. M., Zentall, S., & Grskovic, J. (1997). Families of boys with intellectual giftedness and AD/HD. *Research Briefs*, 11, 185-203.
- Morrow, W. R., & Wilson, R. C. (1961). Family relations of bright high-achieving and underachieving high school boys. *Child Development*, 32, 501-510.
- Newman, C. J., & Dember, C. F., & Krug, O. (1973). "He can, but he won't": A psychodynamic study of the so-called "gifted underachievers."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8, 83-129.
- Olszewski, P., Kulieke, M., & Buescher, T. (1987).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environment on the development of talent: A literature review. *Journal for the Education fo the Gifted*, 11(1), 6-28.
- Passow, H. A. (1991). A neglected component of nurturing giftedness: Affective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for High Ability*, 2(1), 5-11.
- Peterson, D. (1977). The heterogeneously gifted child. *Gifted Child Quarterly*, 21, 396-408.
- Prom-Jackson, S., Johnson, S. T., & Wallace, M. B. (1987). Home environment, talented minority youth, and school achievement. *Journal of Negro Education*, 56(1), 111-121.
- Reis, S. M., Hebert, T. P., Diaz, E. I., Maxfield, L. R., & Ratley, M. E. (1995). *Case studies of talented students who achieve and underachieve in an urban high school*. Storrs, CT: Nac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 Rimm, S. B. (1986). *Underachievement syndrome: Causes and cures: Causes and cures*. Watertown, WI: Apple.

- Rimm, S. B. (1991). Underachievement and superachievement: Flip sides of the same psychological coin.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328-242). Boston: Allyn & Bacon.
- Rimm, S. B. (1995). Impact of family pattern upon the development of giftedness. In J. L. Genshaft, M. Birely, & C. L. Hollinger (Eds.), *Serving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A resource for school personnel* (pp. 243-322). Austin, Texas: Pro-Ed.
- Rimm, S. B., & Lowe, B. (1988). Family environments of underachieving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2, 353-359.
- Roberts, D. J., Carter, K. R., & Mosley, D. (1982). A comparison of the perceptions of gifted children and their parents. *Gifted Child Today*, 24, 46-49.
- Robinson, N. M., & Noble, K. D. (1991). Social-emotional development and adjustment of gifted children. In M. C. Wang, M. C. Reynolds, & H. J. Walberg (Eds.), *Handbook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pp. 57-76). Elmsford, NY: Pergamon Press.
- Schneider, B. H. (1987). *The gifted child in peer group perspective*. New York: Springer-Verlag.
- Silverman, L. K. (1986). What happens to the gifted girl? In C. J. Maker (Ed.), *Critical issues in gifted education: Vol. 1. Defensible programs for the gifted* (pp. 43-89). Rockville, MD: Aspen.
- Silverman, L. K. (1991). Family counseling.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307-320). Boston: Allyn & Bacon.
- Silverman, L. K. (1993). Counseling families. In L. K. Silverman (Ed.),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pp. 151-178). Denver: Love.
- Silverman, L. K., & Kearney, K. (1989). Parents of the extraordinarily gifted. *Advanced Development Journal*, 1, 41-56.
- Sternberg, R. J. (1996). *Successful Intelligence: How Practical Intelligence Determine Success In Life*. New York: Simon & Schuster Rockefeller Center.
- Strom, R., Strom, S., Strom, P., & Collinsworth, P. (1994). Parent competence in families with gifted children.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8, 39-54.
- Subotnik, R., Kassar, C., Summers, E., & Wasser, A. (1993). *Genius Revised: High IQ Children Grown Up*.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Tannenbaum, A. J. (1962). *Adolescent attitudes toward academic brilliance: Talented Youth Project monograph*.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erman, L. M. (1925).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1. Mental and physical traits of a thousand gifted childre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erman, L. M., & Oden, M. H. (1947).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4. The gifted child grows up*.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erman, L. M., & Oden, M. H. (1959). *Genetic studies of genius: Vol. 5. The gifted group at midlif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Thiel, R., & Thiel, A. F. (1977). A structural analysis of family interaction pattern, and the underachieving gifted child: A three-case exploratory study. *Gifted Child Quarterly*, 21(2), 267-275.
- Tuttle, F. B., & Becker, L. A. (1983). *Characteristics and identification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2nd ed.). Washington, DC: NEA.
- VanTassel-Baska, J. (1983). Profiles of precocity: The 1982 Midwest Talent Search finalists. *Gifted Child Quarterly*, 27, 139-144.
- VanTassel-Baska, J. (1989a). profiles of precocity: A three-year study adolescents. In J. L. VanTassel-Baska & P. Olszewski-Kubilius (Eds.), *Pattern of influence on gifted learner: The home, the self, and the school* (pp. 29-39).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VanTassel-Baska, J. (1989b). The role of the family in the success of disadvantaged gifted learners. In J. L. VanTassel-Baska & P. Olszewski-Kubilius (Eds.), *Pattern of influence on gifted learners: The home, the self, and the school* (pp. 60-80).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Webb, J. (1995, September). *A parent's lament—"Take my child please!" Excellence can be a two-edged sword*. Paper presented at the Esther Katz Rosen Symposium on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Lawrence, KS.
- Webb, J. T., Meckstroth, E. A., & Tolan, S. S. (1982). *Guiding the gifted child: A practical source for parents and teachers*. Columbus, OH: Ohio Psychology.
- Weisberg, P. S., & Springer, K. J. (1961, December). Environmental factors in creative function: A study of gifted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 64-74.
- Wendorf, D. J., & Frey, J. (1985). Family therapy with the intellectually gift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3(1), 31-38.
- Whitchurch, G. G., & Constantive, L. L. (1993). Systems theory. In P. G.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pp. 325-354). New York: Plenum Press.

- Whitmore, J. R. (1980).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achievement*. Boston: Allyn & Bacon.
- Wierczerkowski, W., & Prado, T. M. (1991). Parental fears and expect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ounseling centre for the gifted. *European Journal for High Ability*, 56-73.
- Windecker-Nelson, B., Melson, G. F., & Moon, S. M. (in press). Intellectually gifted preschoolers' perceived competence: Relations to maternal attitudes and support. *Gifted Child Quarterly*.
- Zuccone, C. F., & Amerikaner, M. (1986). Counseling gifted underachievers: A family systems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4, 590-592.